

옛날에 이 사름도 애기덜은 많고 아주 간곤해가지고 푸나무 장시(장사)를 항상 허면서 살아봐도 원 놈광 ㄱ찌(남처럼) 살들 못허여. 하루는 이제 남즈가(남편이) 세상에 이견 이렇게 허다가도 이렇게 놈광 ㄱ찌 살들 못허니까 호랑이 입에나 가서 죽어볼자.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산중으로 이제 흐룬¹⁾ 이제 좇아갔거든. 좇아가다 보니 호랭이가 춤 아니찬여서²⁾ 양 쪽에 발에 초롱불 닮은 눈이 흰 하게 돌고³⁾ 큰 골러레⁴⁾ 가다보니 호랭이가 느려오람서(내려오고 있어). 내려오니깐 “하, 이제 저 호랑이네 밥이 되어야겠다.”

해서 갔는다. 호랑이가 이렇게 히뜩하게(힐끗하게) 눈으로 보이면서(쳐다보며) 그자 싹 지나가. 그러니, 그 사름이 뒤돌아 사서 이렇게 보면서,⁵⁾

“호랑이님 저를 잡아먹어 주십시오. 저는 호랑이 밥이 될라고로 왔읍니다.”

그러니까, 호랑이가 하는 말이,

“흐썸흐민(조금하면) 이제 돈만 있으면 범의 눈썹이라도 산다.”

범의 눈썹이 이제 즈기(자기) 눈썹을 북하게 하나 뿔안 주면서,

“당신은 이 눈썹을 갖고 서월(서울) 어느 역에 좇앙 가며는(찾아가면) 쫓죽 장사허는 여즈를 좇앙 가면 당신 살 도리가 납니다.”

이젠 그 놈의 눈썹을 으렇게 눈에 대영 보면은, 사름 많헌디(많은 곳) 가면 물, 양, 도야지(돼지) 쥐, 뽕 고냉이(고양이), 이거 있곡. 틈틈히 사름이 하나씩 있거든. 그러디 으 눈썹은 대영 보면 범해치(범띠)는 범으로 보이고, 소해치는 소로 보이고, 사름해치는 사름으로 보이고, 이제 그런 거거든. 즈기네 집더레(집으로) 이제 영 눈을 대여서 보니까, 즈기네 각시는 둥해치라. 둥해친디 즈기 집에서 그래도 ‘각각각각’ 저래도 ‘각각각각’그램서. [청중 : 웃음]

이젠 서월 어느 역에 가서 영 대여 보니, 머 도야지, 뽕, 시, 물, 머 각국 증싱인디,⁶⁾사름이 이제 하꼬방 집이다가 쫓죽 장사허는 아줌마가 하나 있거든. 거기를 좇아가서 이제,

“실례합니다. 여기 가서, 나 여기서 신바람이나(심부름이나) 조곰 허건 쫓죽이나 한 사발 얻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.”

“아 그렇습니다.”

그럽시다고. 아 인젠 거기서 심바람을 하면서, 장사를 허여 가니까, 이제 머 그 사름 가난⁷⁾ 항

1) 어떤 날에.

2) 정말로.

3) 불같이 환한 눈을 하고.

4) 큰 골짜기로.

5) 호랑이를 보면서.

6) 많은 짐승이.

7) 일하기 시작하니까.

상 사름이 만원이 돼서 이제 손님이 부퍼가지고,⁸⁾ 이제 그 여자가 그 남즈를 내칠 수가 없어.(내 보낼 수가 없어)

“하이고 우리 집이서 언제나 살면서 이제 심바람을 해 줘서.”

“하 그러면 그럽시다.”

그것은 이제 남편네도 엇고 애기도 엇고, 이제 홀어명이거든. 이 사름광(이 사람하고) 살면서 항상 꾹죽 장사를 해간. 이젠 그 사름 가니까 어예(갑자기) 부자가 돼서. 아주 그 하꼬방집도 없 이하고, 아주 좋게 집을 짓고, 아주 춤 2~3년 내로 춤 종을 턱허게 드리고 가만이 앉아서 살게 댜연. 살게댜니까 그 사름이 하루는 생각을 난 이제, 즈기가 이제 그렇게 잘 살아지니까,

“우리집의 아내와 우리 아기덜은 다 굶어서 죽었다.”

그런 생각이 나. 밥을 이제 각시가 해단 턱 허게 종이 해단 들어 놔도 안 먹어. 안 먹으니까,

“어째서 밥을 안 자섬습니까?(잡수십니까)”

“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호랑이 밥이 될량으로 호랑이신디 좇아갔는데 호랑이가 범의 눈썹을 하나 뽑아 주면서, 이제 서월 어느 역에 가서 꾹죽 장사를 좇 아가면은 살 도리가 나리라 해서, 나는 이제 좇아오란 이렇게 행복허게 잘 사는디, 우리 집의 아내와 즈식덜은 다 굶어 죽어실 것이다.”

그러니까 그 꾹죽 장시 허멍(하면서) 만난 이제 춤 각시는 애기가 웃고(엇고) 이런 말을 더 듣 구져(듣고자) 허거든. 허 이제 아이구 미리 말허여시민 허지 지금 ?지 어떠난(어찌하여) 그런 말을 아니 해수젠(하엿읍니까) 허멍, 돈을 이제 얼마 허영(마련하여) 드리면서,

“훈저 빨리 가서 죽엇거든 귀신이라도 데리고 오고, 살았거든 생원으로라도 다 데리고 오십시요.”

허여네 이젠 오란 보니⁹⁾ 죽진 아니 허여서, 다 이젠 죽진 아니허여 살아시니까, 이젠 각시도 데리고, 애기도 데리고 다 가서 서월 어느 역에 간 경 잘 살더라 허여.

(1981. 7 16., 안덕면 덕수리, 윤추월, 여·66.)

제주대학교 국어국문·국어교육과, 『학술조사보고서-안덕면 덕수리 제7집』, 1982, pp.94-96.

8) 붐벼가지고.

9) 남편이 옛집에.